[하비비 센터 정기 뉴스레터 7월호]

Thinking ASEAN
From Southeast Asia On Southeast Asia

- **Thinking ASEAN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의 지원을 받아 The Habibie Center가 발간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수록된 글은 우리정부의 입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국문 요약본

1. 주요 논문

가. 아세안과 남중국해: 아세안 지역주의의 새로운 여명

(**필자: René Pattiradjawane,** Kompas 수석기자 및 인도네시아 중국연구센터 회장**)**

▣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 안보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남중국해 내 불안정은 해상 교역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중국 측의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영유권(territorial sovereignty) 주장은 국제법 규범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태도는 "21세기 무력외교"(Gunboat Diplomacy) 양상을 띰.

주아세안대표부

▣ 국가 간 국익 충돌 시 합의가 불가능한 신뢰구축조치(CBMs) 의 제도적 문제와 역내 군사화로 인한 신뢰 저하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실효적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 측의 구단선(Nine-dash Line)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또한 현 교착상태의 원인이 되었음.

▣ 현존하는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저자는 'Going outside the box'라는 문구를 사용) 아세안만의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구상 중심의 행동강령(COC)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동강령을 통해 ▲역내 회원국 간 갈등 해소, ▲향후 영토 분쟁에 대한 선례 역할, ▲역내 문제 관련 제3국 개입 방지, ▲UN 헌장 하 평화적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질서 속 중국의 부상은 아세안 내는 물론, 역내 및 역외 국가 간 새로운 협력의 메커니즘 설립 기회가 될 수 있음.

나. 로힝야 차단을 위한 역내 대응

(**필자: Nicholas Farelly,** 호주국립대학 미얀마연구센터 소장)

▣ 로힝야(Rohingya)족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종교는 이슬람이며, 불교국가인 미얀마 정부의 탄압 등의 이유로 안다만 해를 거쳐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유입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비정기적 이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역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 노동력을 관리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함.

※ 현재 3백만 이상의 미얀마 노동자가 아세안 역내에 퍼져 있으며, 이 가운데 미얀마 정부로부터 자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 받지 못한 로힝야족도 포함됨.

▣ 통합과 연대를 주축으로 한 아세안이 복잡한 정치적·인도주의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정치·문화·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이익과 로힝야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다. 'IS'와 동남아시아 폭력적 극단주의의 부상

(**필자: A. Ibrahim Almuttaqi,** 하비비센터 아세안연구부 부장)

▣ 필리핀·태국 남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성장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임. 인도네시아 발리 및 자카르타에서의 폭탄테러를 필두로 기독교도·불교도에 대한 차별, 심지어 이슬람 내의 소수종파에 대한 차별도 발생함. 미얀마에서는 다수인 불교도가 소수인 로힝야족에게 폭력을 행사함.

▣ 동남아는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15%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캄보디아에서도 IS에 합류하는 인원이 발생했고, 필리핀의 무슬림 단체는 IS에 충성을 맹세하기도 함. 이에 대해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동남아시아를 "ISIS의 주요 인력 충원지(key recruitment center for ISIS)"라고 묘사함. 이들이 다시 동남아시아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야 함.

주아세안대표부

▣ 아세안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CVE)하기 위하여 오는 10.2(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아세안장관회의(Special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Rise of Radicalization &Violent Extremis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대내적으로 말레이시아는 IS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했고, 인도네시아는 최초로 대테러용 청사진을 마련함.

▣ 그러나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접근, 선언문·법률·백서의 도입 등 하드파워 중심의 정책으로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음.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개혁을 통한 경제적 생산성 제고, ▲민주주의적 자유 보장을 통한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아세안이 희망하는 종교적 다양성과 관용,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임.

2. 아세안 라운드업

가. 2015.7.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5개 회원국 연무 대응 진척 상황 논의
나. 英 카메론 총리, 인도네시아와 IS 공동 대응 전략 합의
다. 중국 "미국, 필리핀 소송 영향력 구사 시도"
라. 아세안 통합의 법률적 한계